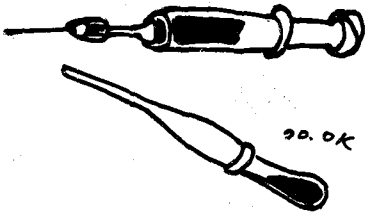


닭병의 예방 및 치료대책



김 기 수
 <천호부화장 업무부장 수의사>

이상에서 우리는 닭의 질병을 여러모로 분류했으며 앞으로는 각종 병의 예방 및 그치료대책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양계는 대가축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생산단지 조성정책을 취해 받지 않고도 소자본으로 조그마하게 시작하여 그 증식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사업의 하나다. 그러나 금후에 와서는 양계업도 기업화 되어감에 따라 대자본으로 사업을 확장시켜가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선진제국의 기계화 시설엔 미치지 못하고 재래식 방법으로 길러 옛날과 같은 수지만을 타산하는 양계가가 많다. 이러한 수적(數的)인 증가에 발맞추어 질적인 과학화와 현실적인 방역계획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갖춘 품종을 고르고 가장 값비싼 사료를 먹여 최대의 수익을 노리던 우리들 계획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질병을 끌어 들였는지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한채 하루아침에 파탄하는 예는 우리주위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양계도 해볼만 하더니 요즈음은 닭병때문에 해볼 엄두가 안난다」고 흔히들 얘기한다. 사실이 지 요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만 하더라도 수십종이 넘으니 그걸 다 막고 튼튼하게 길러 소기의 수익을 내려면 압담한 생각이 든다. 해방전만 하더라도 오늘날 문제시 되고 있는 마렙씨 병이니 백혈병, 만성목시둑증 같은 병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양계를 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내자신의 기업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닭병을 인식하고 그대책에 대하여 숙지한 다음 해방전 우리들이 아무병도 모르고 닭을 치

던 시절로 돌아가 보고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도자 및 일선양계가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시책 및 과학적인 양계법을 습득하여 주먹구구식의 재래식을 탈피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닭을 기르는 도중 질병이 발생했으면 전문가나 수의사가 아닌이상 정확한 진단을 내려 그병명을 꼬집어 내고 적중할 약품으로 완치시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병을 약제에 의존해서만 해결하려는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시정하고 계사의 입지조건, 영양관례 및 관리상태를 재검토함과 아울러 그원인을 광범위하게 분석해 봄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이런에도 가끔 본다. 연탄이나 램프점등을 하면 계사내에 개스가 차거나 끄름이 많아 그 증독증상은 생각지도 않고 이따금씩 줄고 모이를 먹지 않으며 버슬끝이 오므라든다고 자기나름대로 병명을 내려 정평있는 약제를 사다가 치료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정의에도 완치가 안되면 병아리를 닦하거나 사료를 의심하며 악평까지하는 예가 있다. 한결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주위 사정부터 재인식한 다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치료대책을 강구하여야겠다.

1. 계절에 따른 질병분류

닭병중엔 4계절을 두고 항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수한 계절에만 발병하는 특이한 병들도 있다.

계절에 관계하지않고 년중 발생우려가 있는 질병으로는 근대양계의 안전을 뒤 흔드는 3대질

병인 백혈병, CRD, 콕시듐증을 비롯하여 추백리, 뉴갯슬, 계두, 전염성기관지염, 전염성후두기관지염, 뇌척수막염, 가금케스트, 회충증등이 있으며 봄,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전염성 코라이자가 있다.

또한 포도상구균증, 흑두병, 곰팡이성 폐염, 열사병, 가금콜레라, 노산침착증, 전염성하리, 연관증 및 외부기생충에 의한 피해등은 여름철에서 초가을에 많이 발생하기 쉬운 질병들이다.

2. 소독 방법

병아리를 입추하기전 계사의 소독문제나 초생추, 중추, 대추, 성체에 이르기 까지의 이동과 소독문제 및 음수소독 등은 비교적 손쉬운 일이면서도 등한히 하기 쉬운 일이다. 이러한 소독을 철저히 행함으로써 계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병원균은 물론 이를 보관하고 있는 곰팡이, 총란, 콕시듐의 오시스트등을 살멸 제거시킴과 아울러 곤충, 진드기, 쥐등을 기피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다. 우선 계사나 기구류및 급수급이기를 소독 하려면 오물이 남아있는 표면에 단순히 약만 뿌려 소독효과를 얻으려는 안일한 사고방식 보다 오물을 완전히 긁고 쓸어낸 다음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그후 햇볕에 건조시키고 온도를 올려 가장 적합한 소독약을 골라 충분한 약으로 뿌려줄 것이다. 대개의 병원균 및 바이러스는 열과 건조에 약하므로 약 60~80°C에서 10~30분이면 사멸한다. 종전엔 승홍, 석탄산, 차아염소산소다. 크레졸비누액 등이 많이 쓰였으나 현시판소독제 중엔 단졸(현대소독) 가금졸(대한신약), 벤제스(삼양 약화학), 파스텐(극동제약) 같은 계사의 소독, 기구류, 계체를 소독하는 외에 음수소독까지 겸하여 사용되고 있는 료세논(대한신약), 저백스(한국비타민), 스파(한국고킹), 에그크린(북부사료) 등이 있다. 또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 방법으로 포르마린 훈증소독이란 방법이 있다(Formalin Fumigation)이는 주로 부화기소독에 사용되나 계사소독 및 기구류의 소독에도 많이 쓰인다. 소독 방법은 공간 매 100입방척(尺³) 당 과망간산카리(KMnO₄) 17.5g에 포르마린 35cc 즉 1:2

의 비율로 희석하면 포르마린 개스가 발생하므로 미리 문을 닫고 약 3시간 후에 문을 열어 개스를 빼도록 한다. 이때는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며 온도는 29~35°C를 유지시키고 상대습도는 68~70%가 되어야 소독효과가 좋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과망간산카리에 포르마린을 부으면 상당한 열이 발생하므로 깨지지 않는 에나멜(Enamel) 용기에 먼저 과망간산가리를 넣고 여기에 포르마린을 붓도록하고 사람은 즉시 피해야 한다. 안쪽에서 부터 출구로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실시함이 용이하다.

3. 스트레스의 제어

스트레스란 어떤 개체가 심리적, 육체적인 긴장, 압력으로 생체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을 말하는데 이는 닭의 품종, 일령, 한계군(Flock)계절 및 그 영양상태에 따라 강약의 정도가 다르다. 여러가지 외적내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병원의 직접적인 침입 외에도 닭병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고 그요인을 최소로 억제시키는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① 밀사

좁은 면적에 많은 마리수를 사육할 때는 계사 안에서 생기는 암모니아 가스 먼지, 티끌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혼탁하게 되고 이러한 환기상태의 불량으로 호흡기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겨울철엔 보온을 위하여 창을 밀폐시키고 외기와의 환기를 차단시키므로 자칫하면 호흡기병에 걸리기 쉬우니 새바람을 막아 주고 윗쪽 환기창을 이용하여 항상 계사 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밀사는 금물」임을 알면서도 입추시 폐사를 계산하고 어느 일령에 이동시키려든 계획이 사정상 틀려질때 자기도 모르게 밀사가 된다. 이로 인하여 모이통, 물통이 부족하게 되고 영양결핍증, 카니발리즘 등이 생기게 되니 밀사는 만병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막아야겠다.

② 더위와 추위

더위는 반드시 여름에, 추위는 반드시 겨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이라도 이른 새벽이면 쌀쌀한 기온을 나타내기에 자칫하면 압

□ 질병예방 및 치료대책 □

사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니 추위와 더위는 4철을 두고 주의할 문제다.

③ 닭의 이동

초생추에서 성계에 이르기까지 몇번씩이나 이동을 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최소로 억제시킴이 필요하다. 평사에서 케이지로 옮기는 것보다 케이지에서 육추하여 평사 내림은 로좁은 번적에서 살든 환경이 오랜후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계가 되어서도 산란울에 많은 장애를 받으며 수컷일 경우는 자연교미가 불가능 하게 된다.

④ 백신접종과 주사

닭은 그일생동안 여러차례 백신접종을 하게되는데 일정한 방역계획을 세워 그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킴이 필요하다. 뉴캐슬은 사독보다 생독접종이 스트레스가 심하게 가해지며 계두는 1차(1침접종), 2차(2침접종)을 나누어 하는것보다 2침으로 1회만 접종하는 것이 더 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⑤ 사료변동과 관리자의 변경

각기(各期)의 사료는 그 성분요소가 약간씩 다르므로 변경시엔 최소한 2주~4주 간격을 두고 서서히 교체함이 필요하다. 관리자는 초생추때부터 얼룩옷으로 단련을 시켜 놓으면 성계가 되어서도 관리자가 바뀌거나 피복이 바뀌어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⑥ 디비이킹에 의한 스트레스

닭의 부리자르기는 초생추시절 약 7-12 일령 사이에 실시함이 스트레스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이다. 그 이후는 심한 스트레스를 주게되고 백신접종과의 계획에 중첩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겠다.

⑦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

어떤 부주의로 한번 놀라게 해놓으면 정신적인 불안감을 주므로 초생추시절부터 잘 단련시켜 어느정도의 소음엔 놀라지 않게함이 필요하다. 외국같은 데서는 계사내에 항상 음악을 들리게 하여 갑자기 천둥이나 번개가 칠때도 놀라지않게 하고 있다.

⑧ 내·외부 기생충감염

내부기생충이 많을때 체내의 영양실조가 생겨 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평사인 경우는 1~3개월마다, 케이지인 경우 매 3~6월마다 꼭 한 번씩 실시함이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외부기생충은 닭이 잠을 이루지 못할정도로 괴롭히기 때문에 피로계가 되기 쉽다. 늘 계사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기생충의 서식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⑨ 기타

환우, 인공수경, 다습, 직사광선등도 닭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게되니 우리는 늘 주의깊게 다루어야 될 것이다. <다음호에계속>□□